

2016년도 표어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자』

(엡 4:12)

NEW 순복음Life

제5호

발행일 : 2016. 9. 4.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편 3:8



<이달의 신앙간증>

이태권 청년



살롱!! 이태권 청년입니다.

어느 해 보다 더웠던 이번 여름 주안에서 잘 보내셨나요?

즐거웠던 수련회도 벌써 한 달 전 일이 되었습니다.

8월을 보내고 나니 올해도 후반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12살에 유초등부를 들어왔던 꼬마가 청년회의

26살 청년이 되어 있을 정도로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교회에서 지난 2년을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많은 자리의 직책을 맡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청년회의 총무로, 주일학교에서는 6학년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단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학생 청년 연합 수련회 찬양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청년 중에 처음으로 대예배 대표 기도자가 되었고, 주일 예배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다음 해에는 청년회 회장이 되었고, 교사 역시 연임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의 오프닝프로그램과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천로역정이 저의 몫이었습니다. 야외예배 게임을 진행하였고, 연합수련회에서 2시간의 세미나가 제 담당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곳저곳 움직이며 나름 열심히 하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멋진 청년회가 되기를 바랐고, 아이들을 위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목회자에게 도움이 되고 충성하며 늘 멈추지 않는 청년이 될 것 같았습니다. 15년도 청년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나서 전도사님께서 '일을 많이 하는 일꾼일수록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한다'고 권면해주셨습니다. 새겨들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바쁘다는 핑계가 제일 컸습니다. 일은 많이 하지만 예배자의 모습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열심히 하는 겉모습으로 인정받고 칭찬을 들었지만, 속마음은 공허해졌습니다. 스스로의 열정과 열심만 커지니, 마음속엔 성령님이 계실 곳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예배와 기도모임의 찬양 인도자였지만 찬양이 뜨겁지 않았고 콘티를 짜는게 업무가 되었습니다.

천로역정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저는 허무하고 답답한 눈물을 흘리며 성경학교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결정되었던 올해의 청년회 회장 자리를 내려놓았고, 교사직도 도망치듯 그만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날을 돌아보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목사님께서서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평소의 작은 일을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부족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스스로의 열심과 육신적인 충성이 앞섰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하신가요? 내 열정과 열심 그리고 다른 마음들이 하나님을 앞서가지는 않았는지, 말은 직책과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쯤 다시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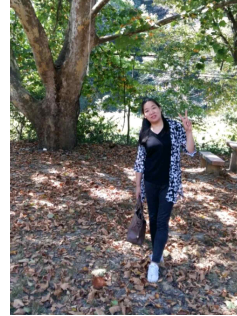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되는 성경 인물들을 보면,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낸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며 말길 때 비로소 그 물을 던진 곳에 물고기가 가득하고, 막혔던 태의 문이 열리며, 돌맹이 하나로나보다 큰 적을 쓰러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를 알아가는 질문>

-최은주 집사-

1. 고향이 어디신지요 그리고 형제지간 가족관계도 궁금해요~
오리지널 당진이요. 정미면 대운산리 5남 2녀 중 6번째입니다.
2. 처음 신앙생활은 어떤 계기로 어디서 시작 하였나요?
시어머니의 권유로 순종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 했어요.
3. 집사님께서 요즘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건강(갱년기)요. 중년의 위기^^
4. 다니시는 직장은 어떠한 곳이며 하시는 일과 앞으로
직장 생활은 언제까지 다니시고 싶은지요?
농업경영인 사무실 사무직이요. 사실은 40까지 목표였는데 4학년 9반이 되었고
은희 대학 때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5. 집사님을 보면 인내, 끈기가 떠올라요. 그 성품은 신앙에서 온 것인지요?
아니면 타고난 성품이신지요.
선천정보다는 고난의 연속을 통한 인내의 영성을 소유하게 된 것 같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6. 자신을 바라볼 때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장점 : 어떤 상황에도 잠잠함으로 대처함.
단점 :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먼저 다가서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
7. 두 아이가 '부모의 이런 점을 본 받았으면 좋겠다.'와 '이런 점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건실한 믿음과 신앙을 본받길 바라고 다혈질과 감정처리 미흡함을
덜지 않길 바랍니다.
8. 점점 더 큰 장막으로 이사하고 계시는데요. 집사님의 생활적인 비전이 궁금해요.
단칸방 → 다락방 → 17평 → 20평 → 26평(현재)
제2, 제3. 아니 영원한 장의 축복으로 노후의 장막을 바라봅니다.
9. 어린 시절 집사님의 학창시절 모습을 적어주세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생활기록부에 빠짐없이 기재 됐던 '암전' ㅋㅋㅋ
그리하여 있는 듯 없는 듯…….
10. 남편 되시는 김동안 성도님과의 첫 만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웬지 잘생겼었음. ㅎㅎㅎ(제 눈에 안경……. 콩깍지인가?)
11. 신앙생활에서 최우선으로 여기는 항목이 있다면??
당연 말씀과 기도지요.
12. 8월의 실천사훈은 '하나님께 집중하라' 인데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Θ을 바라보는 눈, Θ을 모신 맘, Θ께 헌신하는 자세(몸)
13. 항상 입술에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씀 구절을 적어 주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엡 5:9).



14.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인지라 항상 기쁘게 할 수 만은 없더라고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신앙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 주세요.
인생도 신앙도 언제나 굴곡은 있지만 하락 선에 있을 때 up될 수 있도록 은혜를 충족하시길…….그리고 절대적으로 놓지 않을 것은 내가 ㄹ께 속했고 함께 하시는 ㄹ이 계심을 끝까지 믿고 모든 것의 주관자는 ㄹ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면 아주 옆드려지지 않습니다.
15. 기억에 남는 집사님 가정의 심방말씀을 소개해주세요.
18년 전 새 생명(은희)을 주시겠다던 말씀요. (목사님 말씀에 당시 남편이 부재중에 있었는데 기도하면 자꾸 새 생명을 주신다고…….) 사라처럼 비웃진 않았지만 믿기진 않았던 말씀이 2000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16.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복을 받고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 주님을 아프시게 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요, 집사님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없을 때 요구하시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0배의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채우시되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십니다.
17. 늦둥이로 은희를 주셨는데요, 만약에 은희를 낳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삭막 or 적막
18. 지난번 가족특송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 모습에 은혜 받으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남편분 되시는 김동안 성도님에 대한 신앙의 비전을 설계해 주세요.
평상시 찬양을 듣고 부르는 것을 좋아하고 여유가 되면 ㄹ도 성도들도 불쌍한 이웃들도 섬기길 원하고 있습니다. 저의 욕심은 남편과 제가 신앙 믿음 영성의 같은 질과 같은 길을 걷길 바라고 또한 영적인 대화로 소통을 이루는 부부 교회의 최고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19. 새벽기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데요, 요즘 기도하시는 기도제목이 궁금합니다. 하기방학을 시작하자마자 성광이의 군 생활이 어려움에 있었는데 2주간 동안 이른 시간에 나와 독대의 시간을 통해 기도대로 어려움을 잘 극복했고 요즘은 이웃의 기도제목인데 이호준의 카투사합격을 위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의 패턴은 같지만 특별히 중보기도제목 부탁을 받으면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중보 기도 필요하구나 생각하면서…….)
20.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문자 메시지를 보내신다면 무엇을 쓰시겠어요?
(60자 이상 80자 이내로 적어 주세요)
「감히 상상할 수 없음!」
가장 작고 낮은 자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새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고백이 부족하지만 메시지를 통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남은 생 사도바울처럼 사명을 갖고 달려갈 길을 온전히 걸겠습니다.

웃으십시오!



더워도 너무~무 더운 날씨로 모두들 시원한 그늘과 에어컨을 찾느라 바쁜 지독하게 무더운 한여름 날씨지요.~ 한낮의 체감 온도가 무려 35~36도를 넘어서면서 습도까지 높아서 볼래지수까지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더위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에 전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차량 운행에서부터 주방, 화장실, 소각장, 폐지정리……. 그리고 교회 여러 곳을 두루 살피시면서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열심이지만 소리 없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김희주** 집사님이십니다. 교회에 구석진 부분까지 집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헌신을 쉬지 않으시더라구요.~ 이런 집사님이 계시기에 교회가 깨끗해지고 성도들에 불편함이 없어지는 거겠지요!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이 교회를 생명있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가정되시길 원하며 두 손 모으겠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여름성경학교

주제: 기록

일시: 2016년 8월 20.21일

와~ 기쁨이 넘쳐요



기록하신 하나님





* 셋별 유치부 *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너의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의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의도 거룩할지어다

(레 11:45)





* 예수님께 올려 드리는 편지 *



To the world you may be one person, but to one person you may be the world

예수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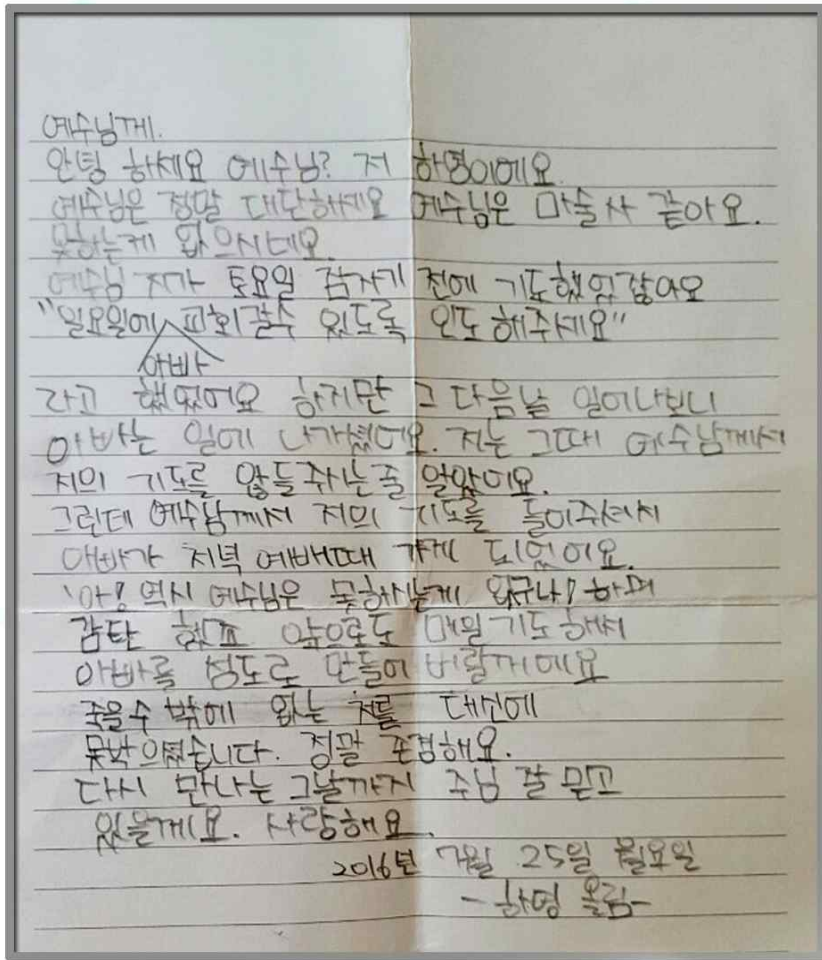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순복음교회에 다니고 있는 장순관이에요.

예수님, 제가 고백할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아주 많은 죄를 지었어요. 동생과 친구들과 싸웠고, 욕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죄도 지었지만 예수님, 저에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동안 죄를 지은 것 다시는 안 지을게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저는 이제 수평이 된 생활을 할거예요. 비행기에는 한 쪽 날개가 작동하지 않으면 들고 들어서 제자리로 모지만 저는 양쪽 날개가 다 작동해서 수평이 되서 전진하는 비행기가 될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예전에 제 친구가 기도를 하면 이루어진다는 지에 말을 듣고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에 소원은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100퍼센트 믿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친구들을 전도해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거예요. 저도 많이 노력할테니 예수님으로 도와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016년 8월 13일 토요일 - 순관물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게 보이리라
 (시편 135:4)



하계연합수련회 비움과 채움





다른얼굴
다른 생각
다른 모습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안에서
안 마음입니다.

성경 숨은 그림 찾기



* 감사해요! - by. 김영단 -



물과 공기의 노동함을 모르고 날아가듯
노동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정작 노동한 것은 가까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1. 너는 무슨 성경이나

어느 수도원에 젊은 청년 하나가 자원하여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늙은 수도원장이 보니, 그 청년 서원자가 따뜻한 봄볕을 쬐며 계단에 앉아 평화로운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무슨 성경이나?”

“예... 로마서를 읽고 있습니다.”

“뭘 읽느냐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너는 무슨 성경이냐 말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연구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마음의 양식과 교양을 축적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다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이 되기 위해서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



2. 성경을 읽을 때 건성으로 읽지 말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빨강색 색연필을 가지고 줄을 그으며 읽습니다. 그렇게 줄을 다 그은 성경책이 여러 권이고(한번 시간 내서 다 찾아 세어봐야겠습니다) 앞으로도 집에 있는 성경이란 성경은 모두 줄을 그으며 읽을 생각입니다.

언젠가 눈은 성경에 있고, 손은 습관적으로 책을 넘기고, 생각은 딴 동네에서 놀고 있고, 발은 까딱거리고, 입으로는 비스킷이 들어가는 모습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한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세상에... 성경을 읽는 품 좀 봐라... 부끄럽더라구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한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에 집중하기 위해서 빨간 줄을 그으며 읽는다! 그렇게 줄을 긋다보면 빨리 못 읽어요. 그리고 하다보면 어떤 리듬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목사님처럼 목욕을 하고 무릎을 꿇는 것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성경 읽는 자세만큼은 확실히 잡혔다니깐요. (가끔 아내와 함께 나란히 누워서 성경을 읽는 시간만 빼구요^^)

<예화>

기적을 사러 왔어요.

테스(Tess)라는 여덟 살 여자아이가 우연히 엄마 아빠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동생 앤드류가 병들었으나 돈이 없어 치료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소” 라고 말합니다.

기적만 있으면 살릴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 소녀는 저금통을 꺼냈습니다.

쏟아보니 1달러 11센트,

소녀는 그 돈을 들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손님과 대화를 나누던 약사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소녀는 “동생이 너무 아파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대요. 기적을 사러 왔어요.”

“뭐 기적을! 약국에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다.”

그때 약사와 대화를 나누던 손님이 물었습니다.

“꼬마야, 어떤 기적이 필요하니!”

“동생이 아픈데 아빠는 돈이 없어 동생을 낫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제 돈으로 기적을 사러 왔어요.”

“그래? 네가 가진 돈이 얼마니?”

“1달러 11센트요.”

손님은 웃으며 “잘 됐구나. 마침 내가 팔려는 기적이 1달러 11센트거든.”

손님은 아이가 가진 돈을 받아들고는 소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바로 세계적 신경전문의 칼톤 암스트롱(Carlton Amstrong)이었습니다.

동생은 수술을 받고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누나가 1달러 11센트를 주고 산 기적이 동생을 살렸던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믿음을 사고 천국을 분양 받으십시오. 믿음을 소유한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달에 issue>



폭염 속 전기요금 폭탄

유난히도 무더운 올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냉방기 등을 켜서 더위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있다. 우리에게 더위를 손쉽게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냉방기 등은 전기로 움직이게 되어있다.



냉방기를 사용 할수록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량보다 몇 배나 되는 전력을 사용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한전에서 정한 누진세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있다. 사용 전력에 따라 붙는 가정용 누진세는 최대 11.7배 까지 붙는다고 하니 냉방기를 돌리면서도 걱정이 앞서는 건 당연한 일이다. 누진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불만섞인 이야기에 정부에서는 한시 적(7월~9월)으로 전기요금을 20%정도 절감해준다고 하지만 전기요금 폭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 절약하는 방법☆

1. TV, 세탁기, 컴퓨터 등 대기전력을 사용하는 제품들의 코드를 뽑아 놓거나 뽑는 게 번거롭다면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이용해보자.
2. 세탁기 이용 할 때 80%만 채워서 사용하자 그럼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3. 에어컨의 경우 2주에 한번은 필터청소 1년에 한번은 실외기 청소 에어컨 온도는 24℃~26℃ 설정하기 바람방향은 위를 향하게 등의 방법을 실천하면 조금 더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다.

마귀의 팔복

- 1)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임이요
- 2)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교회에 겨우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에서 말썹꾸러기가 될 것임이요
- 3) 목사님의 약점과 부족을 보고 트집 잡기를 즐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임이요
- 4)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임이요
- 5) 걸핏하면 비쭈이기를 잘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 나오기를 곧 그만 둘 것임이요
- 6)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며 봉헌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에 가장 잘 돕는 자가 될 것임이요
- 7) 하나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임이요
- 8)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서 마침내 나의 충실한 종이 될 것임이요



✚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자구요~

시사용어 Briefing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 ◎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 ◎ 물리적 실체가 없이 서류 형태로만 존재해 서류(종이)가 회사 기능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사업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기타 합산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활동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설립되고 있다. 세금 절감 목적 때문에 라이베리아,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세계에 널리 알려진 조세피난처에 주로 설립되고 있다.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방어자나 공격자가 상대방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시퀘스터(Sequester)

- ◎ 미국 정부의 자동 예산삭감 제도
- ◎ 백악관과 미국 의회가 재정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부 예산을 강제로 삭감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이다. 시퀘스터는 ‘격리한다·가압류한다’는 뜻으로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이라고도 쓰인다. 실제로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국방 및 비국방부문의 정부 지출이 2021년까지 8년 동안 최대 1조 2,000억달러가 삭감된다. 이 중 국방 예산이 절반을 차지하고 사회보장, 노인 의료보장(메디케어), 저소득층 의료보장(메디케이드) 등 각종 혜택도 축소된다.

맞춤형 보육

- ◎ 보건복지부의 2016년 새로운 보육제도
- ◎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시간의 종일반 보육을 지원하고,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 7시간의 맞춤형 보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맞춤형 보육은 어린이집 0~2세반 이용 아동(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을 대상으로 2016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에 따라 아이의 발달 단계와 부모의 필요한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 ◎ 인터넷상에 기록되고 검색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 개인정보라고 하면 흔히 이름,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만 생각하기 쉽지만 인터넷상에 등록한 글, 사진 등도 개인저작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이므로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개인이 삭제하고 싶어도 기업이 보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스스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잊힐 권리의 핵심이다.

반크(VANK ;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 ◎ 한국 사이버 외교사절단
- ◎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 주는 사이버 관광 가이드이자 사이버 외교사절단이다. 인터넷상에서 한국을 알고 싶어 하는 해외 친구들과 한인 교포, 한인 입양아들에게 이메일로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며, 전 세계 해외 학급과 한국 학급을 대상으로 단체 교류를 주선하여 사이버 만남의 다리를 건설, 각국 젊은이들이 꿈과 이상을 교류할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도 한다.

성과연봉제

- ◎ 능력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 입사 순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호봉제와는 달리, 일하는 사람의 능력 및 성과에 따라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성과연봉제이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 동기부여 및 능동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업무 성과에 대한 스트레스 및 지나친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성들이 성과 평가의 취약계층으로 여겨져 여성들에게는 다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교단마크로 이단교회를 분별합시다



한국 기독교계에는 200여 개 이상의 교단이 있다.

그 가운데 통합, 합동, 고신 등 170여개 이상으로 세분화된 대한예수교장로회가 가장 많고,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보수), 기독교대한감리회(연합) 등으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서대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수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 등으로 나뉘고 있다.

비슷비슷한 명칭을 가진 수많은 정통교단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단들은 이를 악용하여 정통교단과 비슷한 교단명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대한예수교장로회전도총회(세칭 다락방전도운동), 대한예수교침례회(세칭 박옥수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세칭 권신찬 구원파), 예수교대한감리회전리(JMS) 등이 있다. 얼핏 교단명칭으로만 이단 여부를 분별할 수 없기에 교단마크를 통해 이단교회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겠다.

■ 구세군대한본영

교단마크 활용도 : 교회의 소속감을 나타내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소속교회 간판, 총회행사 등에서 사용한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마크 활용도 : 방패, 원형모형 관계없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서 발행하는 책자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다.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마크 활용도 : 주로 교회 이름 앞쪽에 교단마크를 사용해 교단 소속임을 알린다. 그러나 의무적인 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교단마크는 대부분 교단 내부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마크 활용도 : 교단의 각종 서류, 총회 행사 등에 사용되고 있다.

■ 기독교한국루터회

교단마크 활용도 : 교회간판, 홈페이지, 편지봉투 등에 사용한다.

■ 기독교한국침례회

활용도 : 교단 공문, 행사에 주로 사용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교단마크 활용도 : 교단 행사에 주로 사용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

교단마크 활용도 : 총회 행사, 발행 책자, 공문 등에 사용한다. 유지재단에 가입된 소속 단체에서도 사용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교단마크 활용도 : 대신교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교단마크 활용하는 소속 단체에게 “지구도 안을 둘러싼 외곽의 글씨를 노회명 또는 교회명으로 각각 바꾸어 표기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활용시 “임의수정, 변경, 색상 수정은 불가함”을 밝히고 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마크 활용도 : 교단에 속한 교회임을 알리고 소속 교단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마크 활용도 : 교단소속임을 알게 함이 목적이며 교단의 각종 행사에 사용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정통)

교단마크 활용도 : 소속교회의 동판, 총회 행사, 자료 등에 사용하고 있다.

■ 예수교대한성결교회

교단마크 활용도 : 공문, 외부 문서 등에 교단마크가 사용된다.

■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마크 활용도 : 교단 소속 개교회에서 신문 책자를 발행 총회 행사 자료 등에 교단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추석이란~



중추절(中秋節), 가배(嘉俳), 가위, 한가위라고도 한다.

한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이다.

유래는 고대사회의 풍농제에서 기원했으며 일종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

추석에는 정월 대보름보다는 작지만 풍성한 민속놀이도 행해졌다.

씨름, 소놀이, 거북놀이, 줄다리기 등을 즐긴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제주도 풍속에는 조리희(照里戲)라 부르는 줄다리기, 그네, 닭잡는 놀이인 포계지희(捕鷄之戲) 같은 놀이가 있다.

수확철이라 다양한 음식이 선보이며 추석시식(秋節時食)이라 하여 햅쌀로 음식과 송편을 만들며 무나 호박을 넣은 시루떡도 만든다.

찰쌀가루를 찌서 찜어 떡을 만들고 콩가루나 깨를 문힌 인병(引餅), 찹쌀가루를 찌서 꿀을 섞어 계란처럼 만든 울단자(栗團子)도 만들어 먹었다.

또 반보기의 풍습도 있었는데, 반보기란 시집간 여자가 친정에 가기 어려워, 친정 부모가 추석 전후로 사람을 보내 만날 장소·시간을 약속하여 시집과 친정 중간쯤에서 만나는 것이다.

지금은 이 풍습이 없어졌지만 추석 뒤에 음식을 장만하여 친정에 가서 놀다 오게 했다.

지금까지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로 자리 잡고 있어, 추석이 되면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아간다.

북한에서는 추석을 쇠지 않았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공휴일로 정했다.

재미있는 우리말과 북한말

- 
- | | |
|------------------|-----------------|
| 1. 아이스크림 (얼음보숭이) | 2. 도시락 (곽밥) |
| 3. 쥬스 (과일단물) | 4. 운동화 (천신) |
| 5. 화장실 (위생실) | 6. 노크 (손기척) |
| 7. 보조개 (오목샘) | 8. 김매기 (풀잡이) |
| 9. 오두막 (마가리) | 10. 뮤지컬 (가무이야기) |
| 11. 뒷걸음질 (물레걸음) | 12. 간접 (간참) |
| 13. 거짓말 (깡포) | 14. 꽃다발 (꽃묶음) |
| 15. 장모 (가시어머니) | 16. 날씨 (날거리) |
| 17. 계란말이 (색쌈) | 18. 소시지 (칼파스) |
| 19. 볼펜 (원주필) | 20. 방청소 (방거두) |
| 21. 미소 (볼웃음) | 22. 드레스 (나리웃) |
| 23. 단발머리 (중발머리) | 24. 들창코 (발딱코) |
| 25. 우울증 (슬픔증) | 26. 오전 (낮전) |
| 27. 위기 (고스락) | 28. 운행표 (다님표) |
| 29. 눈썰미 (눈정신) | 30. 합병증 (따라난병) |
| 31. 도넛 (가락지뽕) | 32. 주차장 (차마당) |
| 33. 라면 (꼬부랑국수) | 34. 개고기 (단고기) |
| 35. 만화영화 (그림영화) | 36. 야간경기 (등불게임) |
| 37. 꿈나라 (잠나라) | 38. 기성복 (지은옷) |
| 39. 꼭지점 (꼭두점) | 40. 피병(건) |

<유머>

어느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교회선생님 한분이 어린이들을 위해 설교를 하는 날이었다.

그땐 모세의 이야기를 할 부분이었다.

그런데 그 교회선생님은 아직 믿음도 없고 기독교로 개종한지 얼마 안된 분이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없는 틈을 타.... 이런 말을 했다.

“얘들아..~ 모세의 이야기 알지? 거기서 ~ 홍해바다가 나오잖아 ~

거기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갔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라고 하더구나.

홍해바다는 거짓말이고 원래는 되게 얇은 계곡이란단다.”

아이들이 어리둥절해하며 혼란을 겪었다.

그러자.. 한 10살쯤 되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났다.

“와 ! 역시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워요 ! ”

“으응?.. 애야 ~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게 왜 기적 이라는거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곡을 지나간게 기적이라는거니?”

그러자 그 남자아이는 계속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한다.

“ 기적이잖아요 ~ 그 얇은 계곡에 그 수많은 애굽 병사들이 빠져 죽었으니말이죠!”



<이달의 제철음식재료>

9월

은행,
9월

알이 고르며 깨끗하고
은행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이 좋다.

컴나물,
8,9월

집은 초록색으로
싱싱하며 벌레
먹거나 시든
일이 없는
것으로 고른다.

토마토,
7,8,9월

과실이 크고 단단한 것,
붉은 빛깔이 선명하고
균일한 것, 꼭지가...

감자,
6,7,8,9월

감자의 표면에 흠집이
적으며 매끄러운 것을
선택하며, 무거우...

게,
9,10월

다리가 뻗뻗하고 단단하
게 붙어 있는 것, 냄새가
나지 않은 것...

귤,
9,10,11,12월

비교적 껍질이 얇고,
단단하며, 크기에
비해 무거운
것이
껍질이...

석류,
9,10,11,12월

들어보았을 때 무겁고
선명한 붉은색을 고른다.
외피가 단단하고...

배,
9,10,11월

껍질이 팽팽하며 목직한
것을 고르고 상처가 없는
것이 좋다.

블루베리,
7,8,9월

진한 청색이
선명하며 과실입면이 팽
팽하고 균일하게 천가...

대하,
9,10,11,12월

몸이 투명하고 윤기나는
것과 껍질이 단단한 것이
좋다.

굴,
9,10,11,12월

살은 패주가 뚜렷하게 서
있는 것, 통스름하고
통통하게 부풀어...

고구마,
8,9,10월

모양이 고르고 병충해의
흔적이 없을 것,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

갈치,
7,8,9,10월

은분이 벗겨져 있지 않으
며 등이 약간 검정색을 띠
는 것, 은백색...

새조개,
7,8,9,10월

크기가 고르고 껍질에서
윤이 나는 것이 좋다.

고등어,
9,10,11월

크고 살이 단단하며
청록색의 광택이 나고
손으로 눌러 탄력...

랑어,
9,10,11,12월

너무 큰 것도 맛이 없고
2kg 정도의 것이 적당하
다, 전체적으로...

전복,
8,9,10월

광택이 있고 탄력이
있는 것이 좋다.

옥수수,
7,8,9월

껍질은 선명한 녹색
이고 알맹이가 촉촉
하며 수염
이 갈색...

맛있는 제철 음식 먹고 건강한 신앙 생활합시다.^^

● 이달의 교회소식

1. 중식자헌신예배 / 9월 4일 오후 7:30
2. 구역장간담회 / 9월 8일 오후 7:00
3. 찬양예배 / 9월 18일 오후 7:30
4. 권사헌신예배 / 9월 25일 오후 7:30
5. 가을여행 / 9월 26일~27일

● 공지사항

1. 9월 생활실천표어 : 도전하여 너를 새롭게 하라
2. 가을심방 / 11월에 있습니다.

● 이달의 교우소식

1. 박성미성도 재출석 / 열매구역 에스더여선교회
2. 목사님 선교사역 / 9월 19일~23일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권찰
전수현 권찰
송미숙 권찰
조은희 성도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